

초단편영화 <국화의 틈> 지정대사

상황1. 윤정(29,여)과 선영(34,여)의 대화 중 인숙(61, 여)이 다가와 앉는다.

장례식장 안 (I/N)

사람이 별로 없는 장례식장. 윤정이 앉아 일회용기에 담긴 흰 밥을 육개장 쪽으로 옮겨 말고 있다. 기계적인 손동작이다. 그녀의 뒤로 걸린 시계가 오후 열한 시도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킨다. 숟가락으로 푹푹 국에 만 밥을 계속 건드리기만 하던 윤정이 한 숟 떠놓는데 선영이 앞에 앉는다. 그녀가 상 위에 소주 한병을 올려놓는다.

.
. .
.

(생략)

.
. .
.

윤정, 웃는다. 선영이 또 잔 채우는데 선영의 옆으로 누군가 와 앉는다.

선주 모, 인숙이다.

인숙, 종이컵 하나 뒤집는다. 윤정, 슬쩍 눈치 보다 반쯤 따라준다.

인숙이 고맙다고 끄덕인다. 한모금 마신다.

그러고는 윤정을 보고 무슨 말을 꺼내려다 (윤정, 가만히 기다린다) 그만 감정이 북받쳐 입을 막고 눈시울을 붉히는 인숙.

인숙

... .. 선주가, 선주 그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어쩌다 그런, 커다란 차에 치여서, 우리 선주가

선영

(인숙의 어깨 안아 토닥인다)

아이고 엄마

인숙

(눈물 훔친다, 계속 떨어진다)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선주가,

상황2. 윤정을 앞에 두고 선주의 애인에 대해 얘기하는 선영과 인숙

장례식장 안 (I/N)

선영, 애써 화제를 돌려보려는 듯 일부러 밝게 낸 목소리다.

윤정, 지레 놀라 조금 부자연스럽게 눈 깜박인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인숙

... .. 우리 선주가 애인도 있었대?

선영

왜 종종 자랑했었잖아. 엄마는 기억 안 나? 그때 꽃도 사줬다고 막.

인숙

... .. 아아, 출판기념회지 뭔지 하던 날에?